

# “달콤함은 순간... 오래 기억되는 글 써야죠”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시·동화 당선자 인터뷰

강애영 “이기호 선생 소설 읽으며 작품에 대한 열정 느껴”

강대선 “언어에 좀 더 집중해 새로운 세계 창조할 것”

이명선 “어린이 독자 웃고 울고 하면서 성장하는 동화 쓸 것”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당선 소식을 전하는 말을 들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오랜 문壇 친구들이 진심으로 기뻐해주셔서 눈물이 났죠.”(강애영 소설 당선자)

“전화에서 ‘광주일보’라는 말이 들렸을 때, 혹시 ‘당선 소식인가?’라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당시 식당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선이라는 말을 듣고 뭔가 흥분된 듯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강대선 시 당선자)

“믿기지 않아서 ‘정말 당선이 되었느냐’고 몇 번을 물었어요. 그러면서 당일 하루가 느린 화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모든 생각이 당선 소식과 함께 정지된 화면이 되었죠.”(이명선 동화 당선자)

문壇들에게 가장 절박한 무언가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 신춘문예 당선일 것 같다. 신춘문예는 문학을 지망하는 이들에게는 하나의 통과례와 같기 때문이다.

국내 신춘문예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동아일보에서 최초로 시작됐는데 당시 ‘임격정’의 작가 홍명희 편집국장 주도로 처음 생겼다. 거의 10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신춘문예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문학 잔치이다.

2019 광주일보 신춘문예 부문별 당선자가 가려진 가운데 기자는 최근 강애영(소설), 강대선(시), 이명선(동화) 당선자와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이들로부터 당선 소감, 문학을 하게 된

계기, 향후 창작 계획 등 궁금한 이야기를 들었다.

강애영 당선자는 소감이 어떠한지 물음에 “아침 일출을 바라보듯이 소설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면서 “달콤함은 짧은 순간이라는 것도 알지만 험겨울 때마다 오늘을 되새기며 용기를 잃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경계에 선 사람들을 연민의 눈으로 보고 싶고 무엇보다 세상에 태어나 어떤 뜻도 펼치지 못하고 그늘진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대선 당선자는 “딱히 어떤 시인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없었는데 요즘엔 욕심이 생겼다”면서도 “그것은 언어에 좀 더 집중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당선자도 신춘문예 당선작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정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녀는 “어린이 마음을 이해해주는 동화작가가 되고 싶다”며 “어린이 독자가 많이 웃고 조금 울기도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동화를 쓰고 싶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됐을까. 작가라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 습작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의 문학의 길이 결정된다.

“광주대 사회교육센터에서 이기호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소설가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석회성 건염으로



강애영

강대선

이명선

인한 통증이 적지 않았지만 글쓰기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통증을 견디며 좌판을 두드리기가 고통스러웠지만 무형의 생각들을 유형의 문자로 쏟아내야 하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았죠.”(강애영)

강대선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시라고 하는 글을 지었는데 담임선생님이 잘 썼다고 격려를 해주셨다. 그러나 이후 까맣게 잊고 지내다 학교 교사가 된 이후로 문학에 대한 열정이 살아났다”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딱히 공부 방법은 없고 좋은 시를 많이 읽고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서 기초학습 전담강사로 근무하면서 틈틈이 동화를 쓰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거나 습작 모임도 없이 혼자 썼는데 다소 무모한 면이 없지 않았죠. 제가 만난 아이들이 습작품을 읽어 준 첫 번째 독자이자 애독자였어요.”(이명선)

창작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문인이 있거나 좋아하는 작품이 있기 마련이다. 세 명의 당선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강애영 씨는 ‘이방인’의 저자 카뮈를

좋아했고 결혼해서는 박완서 작가의 작품을 탐독했다. 습작기를 거치면서는 이기호 선생님의 소설을 읽으면서 작품을 쓰는 자세와 열정을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강대선 씨는 문태준, 신용복, 손택수, 하린, 박현덕 시인 등 동시대를 살고 있는 시인들의 시에 관심이 많다. 시론 중에서는 안도현 시인의 ‘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도 써라’를 읽었다고 한다.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을 좋아합니다. 생명의 고귀함과 약한 존재에 대한 사랑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이명선)

이명선 씨는 또한 “하이타니 켄지로의 작품들도 좋아한다”며 “인간에 대한 상냥함을 다룬 작품이 감동을 준다”고 설명했다.

세 당선자는 이제 ‘문학’이라는 길고 긴 출발선에 섰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당선 자체로 문학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당선보다 이후가 힘들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의 작가 인생이 활짝 피기를 기대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전시장에 들어서자 투박한 장발에 깊게 패인 이마주름의 ‘자화상’이 발길을 붙든다. 순간 세월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가슴 한켠이 먹먹해진다. 굵고 단순한 필치에 담긴 얼굴은 가난한 농부를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처연한 표정의 ‘자화상’과 함께 내걸린 작가 노트가 가슴에 와 박힌다.

이처럼 화가라는 ‘자화상’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 타인에게 쉽게 꺼내지 못한 고백을 자신의 얼굴에 담아 슬픔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진정한 사색에 이른다. 하지만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그림을 그린다는 건 실제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스스로를 응시하는 동안 또 다른 자신을 대규모 회고전이다. 평생 가난의 굴레

시절 만난 일본인 여성 마사코와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지만 해방이후 아내와 두 아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자 극심한 상실감과 빈곤, 그리움으로 마음의 병을 얻게 됐다. 당시 거장의 위엄에 압도된 듯 쉽게 그림 앞을 떠나지 못한 관람객들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처럼 화가라는 ‘자화상’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 타인에게 쉽게 꺼내지 못한 고백을 자신의 얼굴에 담아 슬픔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진정한 사색에 이른다. 하지만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그림을 그린다는 건 실제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스스로를 응시하는 동안 또 다른 자신을 대규모 회고전이다. 평생 가난의 굴레

## ‘다시 처음처럼’

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는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2008년 작업실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필자가 유독 ‘자화상’에 마음을 빼앗긴 건 지난 2001년 나인갤러리에서 본 그의 모습과 오버랩 됐기 때문이다. 자신의 초대전이었던 그는 화려한 개막식의 주인공과는 거리가 먼, 웬지 쓸쓸해 보였다. ‘그날’ 이후 그를 본 적이 없어 내가 기억하는 화가의 마지막 모습은 ‘자화상’에 머물러 있다.

전시장을 나오는 길, 몇해 전 제주이 중성 미술관에서 마주한 고 이종섭 화백의 ‘연필로 그린 자화상’이 스쳐 지나갔다. 빛바랜 종이에 연필로 그린 자화상은 이 화백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자신이 미쳤다는 세간의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치열한 내적 의식과 끊임없는 필치로 그린 작품이다. 일본 유학

아니라 지나온 삶의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다. 수많은 화가들이 자신의 모습을 캔버스에 옮긴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기해년 새해가 시작됐다.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했던 만진지하게 스스로의 내면과 마주한 적이 있었는지 가늠해볼까만 하다. 바라건대, 올해는 어떤 얼굴로 한 해를 보낼지 한번쯤 되돌아 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신영복의 ‘처음처럼’ 중에서)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서인혜 퀴텟’ 13일 살롱 드 재즈 공연

실력과 재즈 뮤지션의 무대를 선보이는 광주 예술의 거리 ‘살롱 드 재즈’ (예술길 19-2)가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오후 첫 공연을 연다.

이날 공연에서는 ‘서인혜 퀴텟’이 무대를 꾸민다. 이들은 피아니스트 서인혜를 중심으로 색소포니스트 송하철, 베이스리스트 고재규, 드러머 박종선으로 구성된 4인조 재즈 밴드이다.

지난 2017년 1회 용인글로벌 재즈페스티벌 재즈 콩쿠르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서

인혜는 S&S 재즈 빅밴드와 방형승 퀴텟으로 활동한 뒤 지난 10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정규 1집 ‘드리머’를 발매했다. 서인혜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드리머’ 등 8곡 모두를 작사·작곡했다.

색소포니스트 송하철은 지난 2015년 영창콩쿠르에서 우수상을 받고 ‘재즈피플’의 라이징스타로 선정되며 이름을 알렸다.

베이스리스트 고재규는 지난해 대구 국제 재즈축제와 MBC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 등에 출연했고 드러머 박종선은 백



13일 공연하는 서인혜(피아노)-송하철(색소폰)-고재규(베이스)-박종선(드럼).

석예술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서인혜 1집에 수록된 ‘드리머’, ‘문라이트 멜로디’ 등 4곡을 연주하고 잘 알려진 재즈곡인 ‘Woody’n

you’, ‘Shadows of your smile’ 등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전석 2만원. 문의 010-9992-440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 도전하세요”

유·스퀘어 문화관이 오는 14일부터 2월 11일 오후 2시까지 ‘10회 금호주니어 콘서트 오디션’ 참가자를 모집한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음악 영재를 육성하고 무대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금호주니어콘서트 시리즈를 열고 있다.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에서는 만 26세 이하(199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기악(피아노·현악·관악), 성악 부문의 음악성·장래성 그리고 1시간 이상의 독주 가능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한다. 오디션은 다음 달 21일부터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이틀 간 열린다. 합격자는 오는 7-8월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금호주니어콘서트 시리즈 무대에 선다.

오디션 신청서는 유·스퀘어 문화관 홈페이지(usquareculture.co.kr) 공지사항란에서 내려 받은 뒤 선보일 곡명을 적어 전자우편(kumhojuniorconcert@gmail.com)으로 내민 된다. 참가비 11만원. 문의 062-360-843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홍윤화 | 다영 | 최여진 | 김지영 | 김희정

무작정 풍덩하라

# 퀴터걸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20분 방송

CHANNEL